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23.(일) 11:00 < 2. 24.(월) 조간 > 배포 2024. 2. 21.(금)

튀르키예·사우디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정책실장, 튀르키예·사우디 에너지부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저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24.(월)~2.27.(목)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월)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 원전(1,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형원전 건설사업, 전력망 확충, 청정수소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청취한다. 사우디는 에너지원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김수희 (044-203-5332)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연 (044-203-528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